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종란

수원여자대학교, 조교수

The Influence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Jong Lan, Lee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3권 제3호 2019년 9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3, No. 3, September 2019



#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종란

수원여자대학교, 조교수

## The Influence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Jong Lan, Lee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ived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positive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promote and strengthe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219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s data analysis, SPSS 23.0 version was employ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Result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correlated with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factors that exercised an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were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36.8%.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sitive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 enhance and strengthe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Behavior, Culture, Self Concept, Self Efficacy, Student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개인의 삶에서 진로 결정은 일생 생계유지와 사회적 역할과 봉사 그리고 자아실현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진로 결정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된다[1]. 일반적으로 진로 결정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갖고 진로준비 행동을 잘 준비한 대상자일수록 처음 선택한 직장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2]. 진로준비 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 또는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 세계로 성공적으로 입문하기 위해서 대학생활 동안 진로준비 행동을 실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 대학 시절은 자기 이해와 더불어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진로선택의 기회를 찾는 노력을 거치는 시기로,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으면서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진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4]. 그러므로 대학교육은 학생들이 선택한 진로에 부합하는 건전한 신념, 태도, 학문적 수준 등을 준비하고 정련 화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한다[5].

최근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 재가환자의 증가 및 의료기술의 향상, 의료개방 등의 국내외 의료사회의 변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6]. 또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도의 도입은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간호사 부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간호사 배출을 늘리기 위해 간호학과를 신설 및 증원하여 왔다[4]. 이에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높은 취업률로 인해 진로탐색활동이 부족하고 진로 결정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8], 졸업 후에는 대다수가 병원 간호사로 취업하려는 진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신규

간호사 16,884명 중 이직자는 6,437명(38.1%)으로 나타났다[7]. 명확한 정체성 및 간호 가치의 실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나 업무환경, 사회적 인지도에 이끌려 진로를 결정할 경우, 힘든 환경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어 높은 신규간호사 이직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9]. 따라서 신규간호사들이 첫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간호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4]. 그러므로 간호대학 재학 시기에 진로 결정에 영향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진로준비 행동을 촉진 및 향상함으로써 향후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업만족도 증가 및 이직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호조직문화는 간호조직 안에서 간호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신념, 행동방식으로 간호조직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양식, 규범과 기대를 말한다[10]. 일반적으로 조직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소속된 조직 내에서 안정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그러나 최근 간호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등 간호문화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실제 임상현장의 간호조직문화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임상현장 간호조직문화가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11]. 또한, 임상은 겪고 싶지 않은 간호조직문화로 긴 기간 동안 근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경력을 쌓는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곳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12] 임상실습 경험에서 지각된 간호조직문화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간호전문직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자아개념 또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기 자아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 정의된다[13].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전문직종이 공존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14]. 대학생활은 미래에 간호를 이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한다면, 학교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하여 간호사가 되었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5].

또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및 직업의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 또는 유능 감으로 정의된다[16].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러므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해 진로준비 행동을 합리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간호전문직관[5,18,19,20,21] 간호사 이미지·심리적 안녕감·진로 결정 수준[22], 전공만족도[5,19,21], 셀프리더십[4,19], 성격특성·사회적지지·진로 결정 자기효능감[23], 소명의식·사회적 책임성[4], 학업적 자기효능감·취업 스트레스[24], 긍정심리자본[5] 등이 있다. 다양한 영향 변인에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와 이러한 변인들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을 촉진·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개발 교육의 기본 자료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지각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을 확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을 확인한다.

대상자의 지각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지각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정도와 관계를 확인하고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6주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경기도에 소재하는 1개 대학의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편의표본 추출 하였다. 표본 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방법과 예측변수 4개를 고려하고,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 수는 129명이었고, 본 연구의 표본 수는 219명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연구 도구

#### 1) 간호조직문화

간호대학생이 인식한 간호조직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Han[10]이 개발한 간호조직문화 측정 도구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혁신지향 문화를 측정하는 6문항, 관계지향 문화를 측정하는 5문항, 위계지향 문화를 측정하는 5문항과 업무지향 문화를 측정하는 4문항, 총 4개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이 간호조직문화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 .7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 2)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 도구는 Arthur[13]가 개발하고, Song[15]이 간호대학생용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6문항, 윤리 5문항, 자기 계발 및 리더십 3문항, 4가지 영역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Song[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3)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Taylor와 Betz[16]가 개발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Form : CDMSES-SF)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Lee와 Lee[25]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는 목표선택 11문항, 직업정보 6문항, 문제 해결 3문항, 미래계획 5문항, 4개 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4) 진로준비 행동

진로준비 행동 측정 도구는 Kim과 Kim[26]이 개발한 진로준비 행동 측정 도구(16문항)를 인터넷 사이트와 교내 진로상담센터의 활성화를 참고한 2문항을 추가한 Lee[27]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는 정보수

집활동 6문항, 도구구비활동 5문항, 목표달성활동 7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경기도 내 1개 간호대학의 학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허락을 받은 후 6주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30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 11부를 제외한 219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설문지 작성방법 및 필요시간,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거절하거나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자료 수집을 진행하기 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에 자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참여 서면 동의서를 받았고, 설문 작성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에 대한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은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7세였고, 성별은 모두 여학생으로 219명(100%)이었다. 학년은 3학년 74명(33.8%), 4학년 145명(66.2%), 동아리 활동 여부는 ‘있다’ 110명(50.2%), ‘없다’ 109명(49.8%)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에 맞음’이 56명(25.6%), ‘유리한 취업’이 52명(23.7%), ‘가치 있는 직업’이 36명(16.4%), ‘안정적인 직업’이 35명(16.0%), ‘부모님 권유’ 31명(14.2%), ‘기타’ 9명(4.1%)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2명(5.5%), ‘만족’이 95명(43.4%), ‘보통’이 90명(41.1%), ‘불만족’이 16명(7.3%), ‘매우 불만족’ 6명(2.7%), 졸업 후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간호 분야는 ‘임상 간호사’가 151명(68.9%), ‘산업 간호사’가 9명(4.1%), ‘전문 간호사’ 22명(10.0%), ‘보건교사’ 1명(0.5%), ‘교수’가 5명(2.3%), ‘보건소 간호사’ 14명(6.4%), ‘공무원’ 15명(6.8%), ‘기타’ 2명(0.9%)이었다(Table 1).

#### 2. 대상자의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조직문화는 5점 만점에 평균 3.18(±.33)점으로 나타났고,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3.01(±.32)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8(±.46)점, 진로준비 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34(±.57)점이었다(Table 2).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조직문화는 간호학과 지원동기( $F=3.10, p=.010$ ), 학과 만족도( $F=2.96, p=.021$ ), 임상실습 만족도( $F=7.78, p<.001$ ), 졸업 후 취업분야( $F=2.15, p=.04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F=10.09, p<.001$ ), 학과 만족도( $F=12.90, p<.001$ ), 학업 성적( $F=11.94, p<.001$ ), 임상실습 만족도( $F=20.51, p<.001$ ), 졸업 후 취업분야( $F=4.10, (F=7.78,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F=7.92, p<.001$ ), 학과 만족도( $F=14.24, p<.001$ ), 학업 성적( $F=5.88, p=.003$ ), 임상실습 만족도( $F=10.49, p<.001$ ), 졸업 후 취업분야( $F=3.59, p=.001$ )에서, 진로준비 행동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F=3.03, p=.012$ ), 학과 만족도( $F=5.09, p=.001$ ), 학업 성적( $F=8.78, p=.001$ ), 임상실습 만족도( $F=5.52, p<.001$ ), 졸업 후 취업분야( $F=2.68, p=.01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4. 대상자의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의 상관관계 분석결과(Table 4), 간호조직문화는 전문직 자아개념( $r=.42, p<.001$ ),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r=.41, p<.001$ ), 진로준비 행동( $r=.45,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전문직 자아개념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r=.59, p<.001$ ), 진로준비 행동( $r=.48, p<.001$ )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 행동( $r=.53,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2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 ±SD)
Age		22,7	± 3,77
Sex	Female	210	100
	Male	0	0
Grade	Junior	74	33,8
	Senior	145	66,2
Circles activity	Yes	110	50,2
	No	109	49,8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nursing	Aptitude	56	25,6
	Employment	52	23,7
	Valuable job	36	16,4
	Stable job	35	16,0
	Parents requirements	31	14,2
	Others	9	4,1
Religion	Christian	59	26,9
	Buddhism	6	2,7
	Catholic	22	10,0
	None	130	59,4
	Others	2	0,9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2	5,5
	satisfaction	92	42,0
	Average	84	38,4
	dissatisfaction	23	10,5
	Very dissatisfaction	8	3,7
School Records	Poor	13	5,9
	Fair	138	63,0
	Good	68	31,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2	5,5
	satisfaction	95	43,3
	Average	90	41,1
	dissatisfaction	16	7,3
	Very dissatisfaction	6	2,7
Employment Field	Clinical Nurse	151	68,9
	Industrial nurse	9	4,1
	Professional Nurse	22	10,0
	Health Teacher	1	0,5
	Professor	5	2,3
	Public health nurse	14	6,4
	Official	15	6,8
	Others	2	0,9



**Table 2.** Degree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 219)

Variables	M±SD	Min~Max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3.18±.33	2.10~4.20
Innovation-oriented Culture	3.05±.51	1.67~4.67
Relation-oriented Culture	2.63±.67	1.00~4.60
Rank-oriented Culture	3.79±.50	2.40~5.00
Task-oriented Culture	3.31±.56	2.00~4.75
Professional Self-Concept	3.01±.32	2.07~3.7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8±.46	2.24~4.96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34±.57	1.56~4.78

**Table 3.** Difference i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219)

Variables	Categories	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Grade	Junior	74	3.09±.36	8.71	.004	2.94±.31	5.34	.022	3.54±.50	.67	.416	3.00±.55	47.15	.000
	Senior	145	3.23±.31			3.04±.32			3.60±.43			3.51±.50		
Circles activity	Yes	110	3.17±.34	.57	.568	3.01±.31	.06	.955	3.61±.47	.82	.416	3.35±.56	.41	.683
	No	109	3.20±.33			3.01±.33			3.55±.44			3.32±.58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nursing	Aptitude(a)	56	3.31±.35	3.10	.010	3.19±.28	10.59	.000 (a>b)	3.83±.42	7.92	.000 (a>b,d)	3.51±.48	3.03	.012
	Employment(b)	52	3.13±.29			2.85±.29			3.41±.39			3.31±.58		
	Valuable job(c)	36	3.22±.33			3.14±.34			3.71±.44			3.47±.54		
	Stable job(d)	35	3.11±.25			2.92±.29			3.42±.34			3.17±.47		
	Parents requirements(e)	31	3.10±.33			2.87±.26			3.45±.46			3.13±.57		
	Others(f)	9	3.07±.44			2.95±.27			3.54±.67			3.27±.1.04		
	Christian	59	3.15±.42			3.04±.37			3.65±.47			3.37±.64		
Religion	Buddhism	6	3.21±.36	1.79	.132	3.17±.46	.94	.442	3.72±1.01	1.63	.168	3.19±.61	.61	.658
	Catholic	22	3.35±.32			2.94±.32			3.63±.50			3.48±.50		
	None	130	3.17±.28			2.99±.29			3.52±.40			3.30±.54		
	Others	2	3.00±.35			3.20±.28			4.06±.48			3.44±.47		
	Very satisfaction(a)	12	3.42±.47			3.27±.25			3.98±.46			3.73±.47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b)	92	3.22±.32	2.96	.021	3.12±.29	12.90	.000 (a>e)	3.74±.44	14.24	.000 (a>d,e)	3.43±.53	5.09	.001 (a>d,e)
	Average(c)	84	3.14±.32			2.93±.29			3.49±.35			3.31±.55		
	dissatisfaction(d)	23	3.10±.29			2.82±.29			3.18±.43			3.00±.57		
	Very dissatisfaction(e)	8	3.08±.40			2.63±.35			3.26±.49			3.03±.73		
	Poor(a)	13	3.20±.36			2.62±.35			3.17±.45			2.82±.54		
School Records	Fair(b)	138	3.19±.34	.17	.844	3.01±.31	11.94	.000 (a<b,c)	3.60±.41	5.88	.003 (a<b,c)	3.31±.52	8.78	.000 (a<b,c)
	Good(c)	68	3.16±.32			3.07±.29			3.61±.51			3.50±.60		

**Table 3.** Difference i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 219)

Variables	Categories	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a)	12	3.29±.49			3.44±.17			4.10±.55			3.58±.60		
	satisfaction(b)	95	3.30±.31			3.12±.29		.000	3.70±.39		.000	3.50±.47		
	Average(c)	90	3.07±.29	7.78	.000	2.87±.28	20.51	(a>b >e)	3.45±.41	10.49	(a>c, d,e)	3.18±.61	5.52	.000
	dissatisfaction(d)	16	3.02±.38			2.91±.22			3.34±.57			3.12±.56		
	Very dissatisfaction(e)	6	3.11±.19			2.61±.35			3.33±.28			3.10±.45		
Employment Field	Clinical Nurse	151	3.21±.33			3.03±.31			3.58±.42			3.35±.53		
	Industrial nurse	9	3.09±.26			2.97±.27			3.45±.50			2.99±.62		
	Professional Nurse	22	3.15±.35			3.17±.30			3.79±.50			3.61±.67		
	Health Teacher	1	3.30±.00	2.15	.040	3.30±.00	4.10	.000	3.96±.00	3.59	.001	4.00±.00	2.68	.011
	Professor	5	2.92±.31			2.89±.11			3.43±.42			3.26±.81		
	Public health nurse	14	2.99±.29			2.77±.31			3.29±.51			2.98±.51		
	Official	15	3.22±.33			2.77±.36			3.46±.38			3.26±.55		
	Others	2	3.70±.71			3.35±.26			4.60±.51			3.91±.35		

**Table 4.** Correlation Among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 219)

Variables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1	.42 .000	.41 .000	.45 .000
Professional Self-concept		1	.59 .000	.48 .0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	.53 .00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

## 5. 대상자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5). 분석 결과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36.8%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모형 적합도 F값은 8.05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 ). 진로준비 행동에 가장 영향

을 준 예측요인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beta=.319, p<.001$ ), 간호조직문화( $\beta=.234, p<.001$ ), 전문직 자아개념( $\beta=.196, p=.005$ )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정하여 Durbin-Watson 통계량 1.453으로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에 있어 분산팽창인자(VIF) 값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1.618), 간호조직문화(1.270), 전문직 자아개념(1.632)이 10보다 낮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19)

Variable	B	SE	$\beta$	t	p	공차	VIF	R2	F(p)	Durbin-Wats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98	.086	.319	4.62	.000	.618	1.618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398	.104	.234	3.83	.000	.787	1.270	.368	8.05 (.005)	1.453
Professional Self-Concept	.348	.123	.196	2.84	.005	.613	1.632			

## IV. 논 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을 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을 확인하고, 각각의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간호조직문화는  $3.18 \pm .33$ (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11]의 3.64점의 연구결과보다는 낮게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11]의 연구에서는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이며, 간호현장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은 1학년이 3.85점으로 가장 높고, 4학년이 3.4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조직문화의 하위 요인 중 위계지향 문화인식 점수가  $3.79 \pm .50$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11]의 연구에서 위계지향 문화인식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한 간호조직문화는 위계질서에 따른 통제 지향적인 문화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되어 임상간호현장에 적응해 나가야 할 간호대학생은 어떤 유형의 간호조직문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 근무환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생산성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경직된 간호조직문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28]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간호조직 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 간호조직문화를

개발하고 촉진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전문직 자아개념 점수는 평균  $3.01 \pm .32$  점(4점 만점)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Yang[29]의 3.02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eon[14]의 3.27점, Song[15]의 3.17점보다는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이 되어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현장의 실제 간호사의 전문직 실무를 관찰하면서,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양적 증가로 인해 임상실습 현장의 미비한 실습환경으로 인해 실습만족도가 저하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느낌과 견해를 충분히 토론했을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임상실습 현장의 실습환경 개선을 위해 임상현장 관리자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점수는 평균  $3.58 \pm .46$  점(5점 만점)으로,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등[30]의 3.8점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23]의 3.57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일반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와 Lee[25]의 3.49점보다는 높게 나왔다. 이처럼 대체로 고학년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학년일수록 취업이 임박해지면서 진로에 관한 관심이 더 상승하고, 전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되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학년, 자료 수집 시기, 임상실습 경험 여부 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대학생들

보다 간호대학생의 점수가 더 높은 이유는 간호대학생은 입학과 함께 진로의 방향이 결정된 상태로 진로 목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교양과 전공이론 및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간호업무의 과중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간호학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지 않는다고 고민을 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진로 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면담을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진로 결정을 해야 할 고학년의 학생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지 충분히 확인하여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 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34 \pm .57$ 점으로,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4]의 3.18점보다는 높게 나왔고,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 등[20]의 2.49점,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Woo[5]의 2.71점보다 높게 나왔지만,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도구가 같지 않아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같은 측정 도구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대다수가 병원 간호사로 취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탐색을 소홀히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는 진로목표 설정, 정보수집, 도구구비 등의 진로준비 행동계획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은 공통으로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또는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한 경우, 학과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학업 성적이 상위권이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Kim[4], Kim[11], Jeon[14] 등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간호학과 지원 후 간호학 전공에 대한 확신이 적었던 학생들도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현장의 긍정적 간호조직

문화와 간호사의 전문적 실무를 관찰하면서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하게 된다면 간호학 전공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경험이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 및 진로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학과 학업 및 임상실습 적응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 학생과 교수 간의 노력을 통한 자긍심과 자신감 증진을 위한 진로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진로준비 행동이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는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의 변수 간의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지각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의 36.8%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hin과 Kim[17], Kim[23]의 연구결과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 가장 강력한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학과 교과과정 내에 진로준비와 관련된 교과목 운영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한 진로에 대해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조사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준비를 계획하고 행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도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진로준비 행동이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인들 이외에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지 관계에 관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을 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고, 각각의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년, 학과성적,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지도가 필요하며,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을 촉진·강화할 수 있는 관리교육프로그램의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일개 간호대학, 3학년과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 학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반복적 연구를 수행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간호현장 간호조직문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관한 반복 연구를 할 때 지각된 간호조직문화의 유형을 확인하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 행동 향상을 위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적용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1. Park HI, Kim KW. A stud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guidance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002;23(1):99-126.
2. Kim ES.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es according to employment goal setting.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6;29(4):29-46.
3. Kim BH, Kim K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7;9(1):311-333.
4. Kim JS. The effect of vocational conscious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self 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master's thesi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9. p.1-68
5. Woo CH. Speciality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2016. May:287-288
6. Jeong, JH., Kim, JS. Kim, GH.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08;14(1):35-44.
7.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9. January, Report No 345.
8. Bang KS, Cho JK.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88-97.
9. Jung JS, Jeong MJ, Yoo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20(1):88-97.
10. Han SJ.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1. p.1-159.
11. Kim MW.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nursing stu-

- dents about organizational culture of nursing department, ideal, and nursing field.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3):765-776.
12. Kwon DW, Park HS, Yun SH. Experiences of clinical career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fter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18;9(2):449-462.
  13. Arthur, D.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1995;15(5):328-335.
  14. Jeon MK.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3;7(4):119-129.
  15. Song HR,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ing perception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master's thesis*]. Daejeon: Eulji University; 2010. p.1-89.
  16. Taylor KM, Betz N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3; 22(1):63-81.
  17. Shin MK, Kim HS.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ission sens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ego-resilience as a mediat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7;30(4):131-148.
  18. Ko YJ, Kim IK.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 62-71.
  19. Jang TJ.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14. p.1-54.
  20. Park HS, Choi DS, Kim HC.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nursing professionalism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5):93-101.
  21. Han SH.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es, and Sociology*. 2018;8(7):379-389.
  22. Lee KS, Ahn SA. Effect of nurses imag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es, and Sociology*. 2017;7(2):809-821.
  23. Kim KH.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3): 399-408.
  24. Seong JA.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8;2(4):25-35.
  25. Lee KH, Lee HJ.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0;12(1):127-136.
  26. Kim BW, Kim K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97;9(1): 311-333.
  27. Lee MS.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master's thesis*]. Jeollabuk-do. Jeonju University; 2002. p.1-87.
  28. Kim JH, Lee JS. The experience of clinical nureses'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13;14(1):70-80.
  29. Yang KM.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2):445-453.

30. Lee JW, Lee NY, Eo YS.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1): 311-320.

